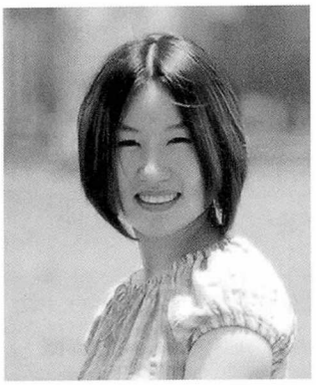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세가지 선택

김성미 | 디자인하우스 출판본부 디자이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난 디자이너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진다면 그 손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고,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단지 잠시 동안 디자이너 자신만을 만족시키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생명을 불어넣고 온기로 감싸안아 씨앗을 품은 '보이는 책' 으로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글쎄…. 선택에 앞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책을 이루는 실질적인 텍스트들이 있고 판형이라 불리는 정해진 사각형 그리고 제목과 약간의 카피 정도가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그렇다면 이 주어진 요소들에서 곧바로 선택은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다. 디자이너는 그에 앞서 먼저 텍스트와 씨름하는 일에 돌입한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편집자의 입장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나의 느낌은?' 이 모든 것과 뒤범벅돼 씨름한 후 잠시 숨을 쉬어본다. 그리고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 혹은 느낌을 소통하는 창이 되기 위해 독자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본다. 그래야만 살아 있는 느낌이 탄생하고 풍성해져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재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의미 있는 재해석이 바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첫번째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아니 선택에 앞서 기회가 주어진다. 우선 판형, 재질,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레이아웃, 여백 등 물리적 요소들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유쾌한 실천으로 디자이너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만이 주어진다면 그건 디자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가 '너' 를 만나 '우리' 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 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넘나들며 선택된 표현들 가운데 재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크기, 색상, 직선, 곡선, 이것, 저것을 하나하나 조절하고 취사선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선 하나, 점 하나는 분명한 책임을 지니고 제 자리를 차지해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번째 선택은? 그것은 바로 자기 삶과 생활의 선택을 말할 수 있다. '북디자인에 웬 삶까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다만 디자이너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있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의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난 디자이너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진다면 그 손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고,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단지 잠시 동안 디자이너 자신만을 만족시키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다.

세상과 호흡하는 열린 자세 필요해

《디자인, 비즈니스로 승부하라》《왜 디자이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가》《디자이너, 세상을 읽고 문화를 움직인다》 등등의 책들도 있듯, 이미 디자인을 화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다. 굳이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의견을 따라잡아 발빠르게 뭔가를 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번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지난해 〈타이포잔치〉를 위해 내한했던 콜린 뱅스(colin banks, 국제타이포그래피디자이너협회회장)의 말처럼 "디자이너의 일이란 결국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지 오로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때론 운도 좋고 솜씨도 좋은데다 여러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예술로 승화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리란 보장은 결코 없기에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하고 느끼며 호흡해 그 자신의 마음과 머리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번, 두번, 세번 그 이상을 선택하면서 진행되는 북디자인은 분명 인간의 향을 가득 담은 하나의 '토탈' 디자인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디자이너가 자신의 사명과 철학으로 작업해나간다면 때로는 아주 진한 향기를, 어느 때는 은근하고 부드러운 향기를 남기며 책의 주체가 돼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김성미씨는 디자인하우스 출판본부 디자이너로 재직중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재미로 살고 있다.